

마크 제닝스 박사, 마크, 강의 2, 마가복음 1:1-13

© 2024 Mark Jennings 및 Ted Hildebrandt

마가복음에 대한 강의를 하는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마가복음 1:1-13에 대한 세션 2입니다.

안녕하세요.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배경 자료를 살펴보고, 복음의 장르와 복음에 대한 역사적 고려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가복음을 실제로 공부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는 1장의 첫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마가복음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조금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파악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 운동을 봅니다.

저는 네 가지 기본 부분이 가장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있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주로 살펴볼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 섹션, 1장 14절에서 시작하여 8장 중간인 8:21까지 이어지는 꽤 큰 섹션입니다.

8장 중간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은 오랫동안 마가복음의 핵심이자 주요 전환점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그것이 이 구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론 다음에 나오는 이 두 번째 부분은 실제로 예수님의 공적 사역, 또한 권위 사역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시야에 들어오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 가지가 모두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첫 여덟 장에는 확실히 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많은 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집이나 회당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첫 8장에는 갈릴리에 대한 초점도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다루는 주제의 대부분은 실제로 예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다룹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베드로가 고백할 때 마가복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변화하기 시작한 지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마가복음에서 주제적 변화를 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훨씬 더 널리 퍼집니다. 심지어 가르침도 제자들에게 더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은 예수가 십자가를 향해 돌아선다는 제목이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했듯이, 마가복음의 결말은 어디에서 끝났는지, 어디에서 끝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의 에필로그는 아마도 그 구조에 대해 약간의 별표가 붙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서문인 마가복음 1장에서 13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서문을 살펴보면, 제가 우리가 아이디어를 잡기 시작하기를 바라는 것 중 하나는 서문에서 소개되는 주제와 테마입니다. 책의 시작 부분은 종종 책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저는 우리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다루는지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복음의 속도와 마가가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그는 또한 많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마태가 다루는 데 4장에 가까운 내용을 마가복음은 13절에서 다룬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우리는 많은 요약 진술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정된 지식인 것처럼 보이는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예수 이야기의 핵심 요소이지만, 쉽게 알려졌을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소개되는 것을 보지만, 세례자 요한에 대한 많은 것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례와 거기에서 중요한 순간을 얻지만, 세례를 둘러싼 대화는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유혹 이야기에 대한 언급을 얻지만,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전체 설명을 얻지 못합니다.

이 서론에서 마크는 매튜, 루크, 존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방대한 자료를 훑어보다가 결국에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거의 거북이 털과 같은 속도가 있습니다. 그는 토끼처럼 매우 빠르게 움직이다가 거북이처럼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 느린 속도는 우리가 다음 마가복음 1장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가진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론부터 시작하여 첫 세 구절로 넘어갑니다. 예수, 메시아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은 선지자 이사야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리니 그가 너희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부르는 자의 소리라.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를 위해 곧은 길을 만드라.

여기서 1절을 언급할 가치가 있을 듯합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리스어 단어인 euangelion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좋은 소식이 아니고, 장르의 의미에서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는 선포, 그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포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절이 책 전체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책 전체를 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마가복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1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 메시아인 예수에 대한 복음의 시작이 아마도 세례자 요한이 하는 일을 실제로 포괄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포의 시작은 마가가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가 본질적으로 세례자 요한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논의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의 이유 중 하나가 예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의 시작이라는 점에 주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예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어 단어 크리스토스의 영어 음역이고, 크리스토스는 메시아를 뜻하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예수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에 대한 복음 선포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복음의 시작, 메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선포의 시작, 또는 어떤 종류의 큰 개념적 방식으로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선포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매우 특별합니다.

예수, 즉 특정한 사람에 대한 선포는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마가가 거기에 위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가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는 실제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 특정 인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1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상할 수 있듯이, 세례자 요한이 여기서 성경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기록된 대로 ,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부르는 자의 음성,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저는 그 문제로 조금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그 본문과 세례자 요한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복음서 모두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세례자 요한에 대한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누구였고, 이 구절이 그를 어떻게 언급하는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이 이사야 구절은 사실 이사야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 텍스트에서 모아서 제시하는 구약 성경 구절이 두 개, 아마도 세 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3:20, 20절 전반부와 말라기 3:1, 그리고 이사야 40, 3절을 합친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구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히브리어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칠십인역, 즉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성경에서 이 시기의 그리스어 번역본을 칠십인역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칠십인역에서 시작은 거의 그대로이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천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출애굽기 23:20, 20절의 전반부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라기에서 문제의 사자는 우연히도 나중에 말라기 4장 6절에서 엘리야로 식별되지만, 이 구절의 일부인 말라기에서는 이스라엘을 정화하고 악인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종말론적 오심을 준비합니다.

이 엘리야 식별은 실제로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종말론적 선지자, 이 엘리야 인물로 식별하실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말라기서에서 중요한 한 가지, 말라기서의 참조 구절에서, 내 길을 준비하라라고 읽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길을 예비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일어난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본문을 세례자 요한에게 돌리면서 우리에게 매우 심오한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라기서 본문을 내 길을 예비하라로 바꾸면서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시는 반면, 여기서 대명사는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임함, 하나님의 재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계획과 시간의 정점, 이스라엘의 정화와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임함, 이것이 예수님의 도래와 함께 일어난다는 감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의 지배적인 근원은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여기서 이사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이것이 이사야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말라기나 심지어 출애굽기 구절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것은 좀 덜 확실합니다. 지배적인 참조에서 위치를 찾아 이 구절의 주요 참조로 이사야를 인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에 속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이사야 40장을 쉽게 들었을 것이고 말라기서도 들었을 것이고 마가가 여기서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이사야의 위대한 메시지, 고난받는 종의 메시지, 종말론적 구원, 이사야 40장 전체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출애굽 언어, 최후의 구출은 마가 복음의 강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다른 구절과 혼동이 있지만 세례자 요한의 도착을 이사야 40장에 고정하는 것은 매우 타당합니다. 이제 세례자 요한에 대해 생각할 때, 특히 신약 시대에 그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자 요한이 선지자 이상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다른 모든 인물들과 달리, 오직 예수와 세례자 요한의 죽음만이 중요한 대우를 받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많은 추종자를 거느렸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은 여전히 세례자 요한을 따르고 혼란스러워하거나 정보가 불완전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왕국의 도래에 대한 요한과 매우 유사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비교하고 대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러 면에서 세례자 요한의 위대함은 예수님의 훨씬 더 뛰어난 위대함을 보여주는 호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야, 종말론적 엘리야, 길을 준비하기 위해 올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에 대한 제안이 곳곳에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예수의 사역의 핵심 부분입니다. 마가는 그것을 예수의 사역의 시작으로 인용할 것입니다.

누가는 제사장 가문에서 나이 많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세례자 요한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다고 여겨졌지만, 요한을 임신했다는 점에서 기적적인 잉태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쿰란이라는 공동체, 즉 쿰란 근처의 공동체와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해 두개골이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의 일부는 이사야 40장 3절이 그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식단과 의복과 관련된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인과관계보다는 우연의 일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유대교는 당시 메시아적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은 다양한 형태를 띠었고, 이사야 40장과 같은 구절이 다른 집단에 적용되는 것을 보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닙니다. 계속하기 전에 몇 가지 마지막 작은 메모. 세례자 요한, 그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몇 가지.

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군중을 모았습니다. 그는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 세례의 상징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의 군중과 그의 메시지를 감안할 때, 그의 주변에 메시아적 잠재력이 발달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지만, 그는 자신에 대해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가 예수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옷, 그가 입었던 것, 머리카락, 그리고 그가 먹은 것을 볼 때,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매우 일치합니다. 즉, 당신이 입었던 것, 당신이 먹은 것, 당신이 행한 것에는 교훈적인 비유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미친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모든 일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지역, 광야는 구약의 초점이

강하지만, 그가 입었던 옷에서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엘리야의 망토와 머리카락이 흥미로운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차림에 대한 엘리야의 노골적인 언급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통치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탐욕과 사치에 대한 판단이 그의 옷과 음식에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에서도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의 많은 부분은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왕국이 도래하면 하나님께 반대했던 자들과,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던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들은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모욕은 세례자 요한이 다가오는 종교 지도자를 독사의 무리라고 부르고 다가오는 멸망에 대해 누가 경고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거의 그들이 처음부터 왜 거기에 있었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마가가 그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세례자 요한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례자 요한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오심, 그리고 하나님의 종말론적 도래인 한 분의 오심을 연결하는 이러한 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그 순간이 이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역사에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의 도래와 함께 행하고 계신 일에 대한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또한 매우 중요한 진술, 말하자면, 마가가 예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적인 진술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7절에서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례자 요한이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내 뒤에 나보다 더 강력한 이가 온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나는 굽혀서 신발끈을 풀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 사람의 신발끈으로 그 정도를 설명한다. 매우 부끄럽고 비열한 짓이다. 하지만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누군가의 입술에서 나온,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첫 번째 종류의 설명이다. 나보다 더 강력한 이가 내 뒤에 온다는 것을 주목하라. 나보다 더 강한 이는 아마도 그리스어 본문을 아주 잘 표현한 것일 텐데, 그곳에서는 더 강한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에 대해 말할 때, 나보다 더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가가 예수의 권위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계속해서, 예수의 힘과 예수의 권위에 대한 이러한 언급을 발견할 것인지에 대한 무대를 아주 잘 설정합니다. 그래서 마가에서, 그가 세례자 요한의 도착을 다룰 때, 그는 그것을 매우 간략하게 다루지만, 그는 그것을 길을 준비하는 자와 연관시키고, 그는 그것을 예수의 힘과 연관시킵니다.

절에서 마가 가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마지막 것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초기 교회가 고백했던 것과 같은 유형의 세례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요한의 세례, 즉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가 그것과 몇 가지 유사점이 있지만,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종류의 공동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물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맞는가입니다. 다양한 이론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쿨란 공동체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하는 일과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것이 그렇게 강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평하게 말해서, 우리는 요한이 행한 일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우리가 “아, 이게 요한이 하는

일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흔하고 잘 알려진 관행을 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세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글썄요, 만약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면, 즉 그의 옷차림, 그의 매너리즘, 그의 음식, 그리고 그의 위치가 모두 메시지의 일부라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우리가 그의 세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곳은 거기일 것입니다.

그의 세례는, 그의 메시지와 일치하는 물 세례와 함께 상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복음서 전반에 걸쳐 그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보는 것 중 하나는 심판이 도래하고, 심판의 시간이 왔으며, 도끼가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정화 의식이나 씻음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종종 물이 전달하는 다른 상징과 함께 이해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은 심판이고, 그것은 혼돈이고, 그것은 파멸이고, 홍수입니다. 그 이미지를 생각해 낼 수 있다면, 아마도 노아의 것도 심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심판받을 자격이 있고, 그들이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음을 고백하라고 촉구한 다음 상징적으로 그 심판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자비를 묘사하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죄를 회개하라는 그의 메시지와 맞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흥미로운 것은, 그의 세례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이 여기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데 동의했을 때,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요한의 대화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말해주며, 예수님이 우리 죄인이 속한 곳, 아마도 심판을 받는 곳에 있는 것이 옳다고 확신하고 동의한 다음 십자가를 예상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의 세례를 무엇과 비교합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행하실 영의 세례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사야 4장과 이사야 11장, 에스겔 26장, 39장, 요엘 2장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메시아와 영, 그리고 독특한 방식으로 영의 임재가 부활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메시아와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함께 오는 것을 기대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저는 요한이 이 현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물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영을 생각한다면, 영의 도래, 만약 물이 심판을 상징하지만, 또한 일종의 심판에서 나온다면, 아마도, 그 세례에서, 우리는 영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의 도래와 함께, 심판의 특성을 지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도래, 위로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물은 요한에게 상징적인 반면, 요한이 말하는 것은 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요한이 사용하는 은유가 아니라, 그것의 종말론적 현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흥미롭습니다.

물론, 마크에 대해 실망스러운 점 중 하나는 마크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아주 간략하게 제시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가정된 지식일 수도 있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들은 초기 교회가 알고 언급해야 했던 예수 이야기의 핵심 요소일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 없이는 예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자면, 이런 종류의 핵심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서론의 처음 여덟 구절에서 두 가지 주요 아이디어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역사의 성취로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이사야가 지적했던 위대한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기와 말라기의 힌트가 있다면, 그 위대한 이야기가 이제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역사의 핵심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말했듯이, 예수는 더 강한 자이며 그의 권위와 그의 능력입니다. 서론의 처음 여덟 구절에서, 이것들은 제가 우리가 염두에 두기를 바라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서론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서 지금 조금 더 나아가서, 9절에서 13절까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셔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기뻐한다.

즉시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셨고 그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는 야생 동물과 함께 있었고 천사들이 그를 시종들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 이야기에서 매우 흔한 요소, 알려진 요소이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해석적 주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절부터 시작하는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당시의 일부 번역에서는 마가가 순수한 전기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많은 시간을 건너뛰었고, 말하자면 특정 기간 내에 고정시켰습니다. 당시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은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에요. 우리가 나사렛에 대해 아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가 그곳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마을이었습니다. 구약성서와 탈무드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요세푸스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신약성서는 언급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역사학적 증거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웅을 격상시키고자 하는 이야기를 만든다면, 당신은 그들을 나사렛에서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베들레헴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언적인 참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갈릴리에 대해 일반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나사렛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나사렛이 지금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고대 도시 중 하나라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왜? 왜냐하면 예수가 온 곳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사람들이 나사렛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유일한 역사 기록은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조롱하고 왜 그곳에서 무언가가 나올 수 있는지 의아해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매우 겸손한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주목하세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말해서, 이 순간처럼,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즉시 그리고 바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마가가 우리를 계속 몰아가는 속도의 일부입니다. 그가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그는, 즉 예수는 하늘이 찢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흥미로운 언어가 있습니다. 찢어진 채로. 사용되는 단어는 직물이 찢어지는 아이디어입니다. 영어 단어 schism은 여기서 사용되는 그리스어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말하자면 찢어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그것이 마태와 누가가 사용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하늘이 문이 열리거나 문이 미끄러지는 것처럼 열렸다고 말합니다. 마가는 하늘이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매혹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사야 64장 1절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오, 당신이 하늘을 찢고 내려오시고, 산들이 당신 앞에서 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찢어지는 언어는 단순히 이사야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같은 용어가 사용되는 다음 순간을 예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입니다. 성전, 지성소와 나머지 복합물을 분리하는 휘장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성전 우주론에서 천상의 영역, 천상의 공간이 휘장으로 지상의 영역과 분리되어 있다고 자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분리하는 거대한 우주론적 구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원의 건설과 사원의 디자인은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내부와 외부를 분리하는 베일, 그리고 또 다른 베일이 있었는데, 상징주의로 표현되었습니다.

창조의 상징주의, 우주의 상징주의, 에덴 동산을 상징적인 형태로 거의 다시 만든 아이디어가 성전의 디자인에 표현된 것입니다. 여기서 제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제들은 성소 밖에 있을 때, 다시 말해 지상의 영역에 있을 때, 그들의 예복에는 종종 창조를 전달하는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묘사된 것은, 그들이 일하고, 섬기고 있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베일을 통과해 안쪽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옷을 전부 흰색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들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천상의 위치를 가진 독특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복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 옷을 갈아입었을까요? 더 나은 방법이 없어서, 그들이 베일을 통과했을 때였습니다.

필로는 신성한 로고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신성한 로고스, 즉 이론적 인물이 베일을 통과하여 창조의 요소를 취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점은, 하늘의 찢어짐 과 성전의 베일의 찢어짐은 같은 것을 말하는 두 가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던 것이 이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계시가 일어나고 있다는 종말론적 품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흥미로운 책받침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 둘을 연결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독서에서 하늘이 찢어지는 것은 하느님께서 예수에 대해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의 아들됨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 성전의 이 휘장, 지상의 성전이 갈라지고 찢어질 때, 그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또 다른 고백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하느님이 아니라, 이번에는 로마 경비병이 예수의 죽음을 고려하고, 이 사람이 분명 하느님의 아들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분리가 있는데, 분리되었던 것이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적인 고백이 있는데, 하나는 신에 의한 것이고, 하나는 인간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누군가가 마가복음에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을 할 때, 그들은 침묵하라는 말을 듣고, 꾸지람을 듣고, 바로잡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크는 문학적 이유로 이런 요소들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주의를 끌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옳은 말을 하는 유일한 순간은 신이 말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악마적이거나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에 도달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시정되지 않고, 질책되지 않고, 침묵되지 않습니다. 마치

마가가 독자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말하는 것이 언제 괜찮은지 알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이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는 이 찢어지는 언어, 이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된 것,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면, 먼저 성령의 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서 4절은 주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게 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함을 나타내지만, 영의 임함은 그 메시아적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의 임함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위에 임하신 영의 임함은 예언된 것이 이제 왔다고 말하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신은 아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삼위일체 그림이 있고, 예수의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은 비둘기에 대한 언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흥미진진합니다. 비둘기는 아마도 부사적으로가 아니라 형용사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심판이고 비둘기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여기서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와 그의 세례가 파괴적 심판의 색조를 띠고 있다는 내 생각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스스로 파괴를 겪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즉, 이 아들됨, 아들됨에 대한 계시는 예수님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신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요점을 제기하는 이유는 신의 아들로 선언되는 것이 고대 세계에서 알려지지 않은 현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대교에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천사가 신의 아들로 불렸고, 왕이 신의

아들로 불렸고, 이스라엘 자체가 신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각은 순종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었고, 특정한 방식으로 신에게 순종하도록 따로 구별된 독특한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로마 세계에서도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위대한 영웅은 이집트에 있을 때 신의 아들로 선언되었습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그의 양아버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자 그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로마 인물이 신의 아들로 선언되었을 때, 그것은 대개 그들이 행한 위대한 행위 때문이었고, 보통은 그들이 죽었을 때, 때로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중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아들됨에 대한 선언을 보게 되고, 마가는 아직 아무것도, 중요한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가 행한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에 근거하여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곧 신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내가 여기 어디에 있는 거지? 오,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은 11절인데, 내가 사랑하는 자이다. 나는 너와 함께 기뻐한다. 그런데 너는 강조적이다.

그리스어가 구성된 방식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처음에 본 것처럼 여러 구절의 인용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즉위 시편, 메시아, 다윗 왕조의 선언인 시편 2-7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언어는 창세기 22:2의 힌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언어는 시편 2:7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삭,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외아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당신이 사랑하는 외아들이며, 이것이 맞다면, 예수와 이삭의 연결이 여기에 그려질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하고자 한 의지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희생하고자 한 의지의 비유에 대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은 이사야 42:1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더 큰 종의 노래의 일부가 자신을 희생으로 바칠 개인으로 선택됩니다. 여기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세례 때 선언하신 것인데, 저는 세례 때 일어나는 일이 예수님이 여기 계신 이유를 반영하기 때문에 세례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심판이 일어나는 죄인들에게 속한 곳으로 가서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그 물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세례 때 이 선언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즉위 언어를 결합하여, 예, 이것이 다윗의 메시아이고, 이것이 오실 분이며, 이 다윗의 메시아는 또한 희생될 종입니다.

이삭처럼, 사랑하는 아들, 희생될 종. 그것은 매혹적이고 강력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계시하신 후 세례에 대해 빠르게 살펴보고, 마가는 여기에서 매우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누가 무엇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보고 들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러자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곧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즉시 알게 됩니다.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인도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모티브로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인도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스라엘 언어를 크게 다룹니다. 그리고 저는 마가도 이것을 조금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인도되어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숫자 40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단지 사탄에게 40일 동안 유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마가복음에 제시된 첫 번째 적은 사탄입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 헤롯, 다른 사람들 앞에 제시됩니다. 제시된 적은 사탄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특히 엑소시즘에서요 .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이 동물들과 함께 있었다고 알려주는 흥미로운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왜 여기 있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를 돌보는 천사들은 다른 곳에서 언급되지만 동물들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마크는 동물들이 일반적으로 광야에서 위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위협이 아닙니다.

그가 보호받을 것이라는 것은 가능합니다. 에덴에 대한 힌트일까요? 동물과 두 번째 아담은 어디에 함께 있을까요? 아니면 마크가 역사적으로 정확하고 동물들이 엘리야가 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그를 돌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야생 동물을 추가하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역사학적 특성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예수 주변의 삶이 타락 전과 같았어야 한다는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주변에서 타락의 영향이 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치유에서 그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타락의 영향만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도 풀리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서론에 대한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끝내기 전에 얼마나 많은 것이 빠졌는지 다시 한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여러 가지 요점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저는 마태가 이것을 언급하거나, 요한이 이것을 언급하거나, 우리는 누가로부터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에 대해 아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사건의 많은 부분을 마가로부터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태, 누가, 요한으로부터 얻습니다.

그것은 마가의 페이스 전략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가가 몇 구절에서 하는 일을 마태는 여러 장에서 하고 있으며, 우리는 마가가 극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지점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는 세레 요한의 도착, 세레 요한이 예수에게 세레를 베푸는 일, 그리고 광야로의 이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사용했던 것과 같은 수의 구절을 단 하루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수는 동일 하며, 그 중 두 구절은 그저 성경 본문이고, 세 구절은 성경 본문 인용문이며, 그가 단 하루를 이야기하는 데 사용할 구절의 수는 동일합니다. 마가는 그 단 하루가 예수가 누구인지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장 1-13절로 갑시다.

이것은 마크 제닝스 박사가 마가복음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1-13에 대한 2차 세션입니다.